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진선영*

〈차례〉

1. 들어가며
2. 제2세대 여성작가군 내에서의 장덕조의 위치
3. 착실함의 근거, 부부중심의 가정소설
4. 질투의 역설, 신 '부부도'(夫婦道)의 건설
5. 비극적 아이러니, 제삼자의 개심(改心) 장치
6. 나오며

〈국문초록〉

장덕조는 식민지 제2세대 여성작가군을 대표하는 작가로 1932년 19세의 나이로 등단한 이래 2003년 작고할 때까지 60여 년 동안 다종,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누락되어온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문학적 출발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덕조는 식민지 여성의 생활과 감정에 밀착되어 있는 소재를 채택하여 서사화한다. 가정소설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소설은 '아내'와 '남편'을 주인공으로 부부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자녀 출산의 문제와 부부사이에 제삼자의 개입으로 인한 질투이다. 이는 1930년대 이상화된 젠더담론으로서 현모(賢母)와 양처(良妻)의 문제와 연결된다.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내의 자질 부족으로 현모(賢母)가 될 수 없는 결핍의

* 이화여자대학교

징후이다. 투기 또한 아내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한 행동으로 양처(良妻)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구래의 칠거지악(七去之惡)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이혼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들은 재래의 부부/가정과는 다른 '사랑'으로 맺어진 1930년대적 '신 부부/가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애정갈등의 한 양상으로 다루어지는 출산과 질투의 문제는 개입된 인물들 간의 비난보다는 구성원간의 반성의 계기가 됨으로써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고 신가정의 새로운 부부도(夫婦道)가 건설된다. 신 '부부도'는 부부애(夫婦愛)를 바탕으로 하는 아내와 남편의 강화된 역할론이다.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살이에 힘쓰고 자녀를 출산하고 투기를 금하며, 남편은 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충실하고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부부애를 바탕으로 한 부부역할론은 1930년대 신가정에 적합한 가정 윤리로 재탄생된다.

핵심어: 제2세대 여성작가군, 가정소설, 신가정, 질투, 부부애, 부부도, 가정윤리, 아이러니, 도덕적 개심

1. 들어가며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여성 문학 연구는 이미 그 탁월한 성과를 집적한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에 집중하여 여성의 타자화,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많은 여성작가의 발굴과 다시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일정도의 성공과 완성을 이룬 페미니즘 문학 비평은 오히려 여성 문학 연구 내에서 계보학적인 지형도를 구축하고 정전을 재배치하는 양상을 통해, 페미니즘 비평이 비판했던 그 지점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의 왜곡과 연구자들의 선택적 취향에 의해 여전히 미발굴과 오독

의 그물 속에 갇힌 많은 여성 작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페미니즘 비평의 연구 과제는 여전히 무한하며 그 비평적 역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취지와 목적을 기반으로 식민지 제2세대 여성 작가군을 대표하는 장덕조의 초기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덕조라는 이름은 익숙함과 생소함을 동시에 안겨준다. 작가명이 주는 친숙함의 이면에 대표작을 떠올릴 수 없는 낯설음은 현재 문학사에서 장덕조의 위치를 새삼 가늠케 한다.

2. 제2세대 여성작가군 내에서의 장덕조의 위치

장덕조는 식민지 제2세대 여성작가군을 대표한다. ‘조선여류작가론’을 통해 당대 여류작가의 목록과 성질을 고찰한 임순득의 글¹⁾과 식민지 시대 여성작가의 형성과정을 살핀 심진경²⁾이 분류한 여성작가 목록을 볼 때, 공통되는 제2세대 여성작가로는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이선희, 모운숙, 노천명, 장덕조 등이 있다.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으로 대표되는 제1세대 여성작가군의 개인적, 문학적 비극과 변별되는 제2세대 여성작가군은 박화성, 강경애의 리일리즘적 계급문학론을 제외하고는 그 여류적 정체성을 ‘여성다움’에 기대고 있다.

상식처럼 정의되는 2세대 여류문인 집단 내에서 장덕조의 위치는 독특하다. 이화여전 문과 출신으로 기자생활을 했다는 점,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작가 좌담회의 중심멤버이자 여류문단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2세대 여성작가의 존재론적 특성을 모두 겸비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 성향으로 ‘여성적’, ‘가정적’, ‘정신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 또한 2세대 여성작가 그룹의 한 일원으로 손색이 없다.

1)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성작가론』, 『여성』, 1940.9, 51~55쪽.

2)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상허학보』 13집, 상허학회, 2004, 277~314쪽.

장덕조는 분명 2세대 여성작가군을 대표하며 왕성한 문단 활동을 하였지만 다른 여성작가들에 비해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이 일천(一賤)하다. 현재 여성 문학 연구의 지형도 속에서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이선희, 장덕조를 다루는 무게 추는 현저히 기울어져 있다. 리얼리즘적 현실인식을 통해 여성주의적 비판정신을 선보인바 일관되게 고평받는 박화성과 강경애, '여류다움'의 새롭게 보기를 통해 꾸준히 주목받는 최정희나 이선희, 그러나 비평의 결과가 비판(批判)이든 찬(讚)이든 장덕조 문학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장덕조는 1932년 19세의 나이로 『개벽』에 기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이태준의 추천으로 『제일선』에 「저희」를 발표한다. 이후 작고한 2003년까지 60여 년 동안 소설, 희곡, 라디오 및 TV 드라마 등 다채로운 문단 이력을 선보이며 2세대 여성작가 중 가장 긴 시간동안 문학 활동에 전념하였다.

장덕조가 문단 활동을 하던 당시 작가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2세대 여성작가들에 대한 부정적 비판과 다르지 않다. 이화여전 문과 출신의 기자라는 직업은 그녀들의 인텔리성을 보증하지만 허영에 가득 찬 취미로서의 글쓰기로 문학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³⁾ 당대의 비평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한 비평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여성작가의 사생활을 소설에 소급 적용한 경향이 적지 않다.

처음으로 장덕조의 작품에 주목한 백철은 「자장가」, 「약한 자」, 「양말」을 고평한다. 이 작품들이 인텔리 남성의 비굴성과 무력한 성격에 대조적으로 여성의 영리함과 인내성을 잘 그려내었다고 평가한다.⁴⁾ 이후 「여름밤」과 「안해」를 비평한 자리에서 여성작가다운 섬세한 감각을 투입하여 경쾌한 템포로 작가의 재치를 보였으나 이전의 작품에 비해 심리추구의

3) 홍구,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1933.3, 75쪽.

양주동, 「여류문인 편감촌어」, 『신가정』, 1934.2, 30쪽.

이무영, 「여류작가논평」, 『신가정』, 1934.2, 70쪽.

4) 백철, 「금년의 여류창작계」, 『여성』, 1936.12, 60~63쪽.

불분명, 인물 성격의 모호 등으로 전체적으로 작품의 품격을 갖지 못한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다.⁵⁾ 백철의 평가는 여류작가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개별 작품을 짧게 인상평한 성격이 짙으나 장덕조 소설의 장단점을 적절히 지적하여 후행하는 연구의 유의미한 지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땅의 부인문학이란 미래의 문학이지 현재의 문학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당대 여류문학 전체를 살핀 임순득의 글은 1930년대 당시 여류작가의 면모와 문학에 대한 탁월한 평가를 선보인다. 임순득이 당시의 부인문학을 부정하는 근거는 그 출판물들이 조선의 생활감정과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애뜻한 하소연에 치중하는 궁색한 감성’의 최정희, ‘천상의 노래와 같은 미사여구로 신선의 아지랑이를 먹고 사는’ 모운숙, ‘고도에의 편력을 즐겨하며 관념적인 고뇌를 부러가며 병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선희 등은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임순득은 그 중 장덕조의 소설에서 새로운 부인문학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씨를 가정부인의 여기라고 부질없는 입놀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장 씨만은 어느 누구의 ‘여류소설가’보다도 착실한 문제에 착안점을 두고 겸손하게 자기의 창작대상으로써 키우려는 성의를 보여준 작품 <자장가>를 제외한 최근의 ‘여류작가’ 속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씨의 협력은 창작대상이 어느 정도의 높이와 심도를 갖추어진 우연성을 기다릴 것 없이 씨의 문학시야는 높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최정희, 모운숙 씨의 세계에 허전하여 받을 디딜 수 없는 것이다.⁶⁾

임순득이 장덕조의 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점은 그녀가 즐겨 다루는 ‘착실한 문제’에 있다. 이때의 착실함은 당대 여성의 생활과 감정

5) 백철, 「10월 창작평-금일의 문학적 수준」, 『조선일보』, 1938.10.5.

6) 임순득, 앞의 글, 53쪽.

에 밀착되어 있는 소설 소재를 말한다. 여류문인이 자신의 생활 근거가 되는 가정문제를 소재로 하여 당대의 다양한 여성의 삶과 습속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임순득이 고풍한 장덕조 소설의 특징이다. 매일 매일의 삶을 견인하는 일상성,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와의 같은 ‘교훈’은 여성에게 체험적 삶의 지혜가 된다. 이것이 당대 최정희, 모운숙, 이선희 등과 변별되는 장덕조만의 착실함이다.

장덕조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수행한 1930~40년대 평단의 반응은 앞서 다룬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다종의 장르와 다작의 작품을 출간하였음에도 이후 장덕조 문학은 문학사에서 ‘안이한 작품 내용’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⁷⁾ 장덕조의 작품이 일관되게 비판받는 주제의식의 안이성은 한국문학사를 내리누리는 사회 비판의식이거나 사상성의 반대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임순득이 말한 ‘착실함’의 다른 명명이며 여성작가와 모태적 친연성을 갖는 일상의 윤리이다.

2000년대 이후 장덕조 문학은 작품론이나 작가론이 아닌 다양한 주제론적 방법론에 의해 주목받는다. 작가의 친일(親日)과 종군(從軍)의 역사적 협력은 국가주의에 동원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된다.⁸⁾ 일제 말기, 한국전쟁 중 장덕조의 문학이 지배담론에 호응하려 했던

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491~492쪽.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286쪽.

8)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318쪽.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38~41쪽.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69~87쪽.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제3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57~276쪽.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1집, 한국어문학회, 2008, 333~357쪽.

장미경·김순전, 『여성작가 소설에서 본 내선일체 장치-최정희 「환영의 병사」와 장덕조 「행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51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0, 183~192쪽.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한중인문학연구』

여성지식인의 의도적 글쓰기였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1950년대 대중연애소설은 당대 여성들의 현실적 문제와 변화된 사회상을 꿰뚫히 묘사하며 새로운 세대소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이 시기 장덕조의 신문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는 대중소설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장덕조 소설의 발전적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접합된 결과이다.⁹⁾

2007년 조리의 박사논문은 장덕조의 작가적 행보와 방대한 전작의 면면을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각각의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작을 살피고 장르문학에 대한 인식을 발판으로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작가의 저력을 고찰하였다.¹⁰⁾ 조리의 논문은 장덕조에 대한 비평적 관심을 촉발하고 연구의 규모 면에서 높이 평가 될 만하나 연구의 출발점으로서의 방법론적 미숙함이 엿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들의 선구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누락되어온 장덕조의 초기소설을 연구하고자 한다. 장덕조는 60여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다작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등단 후 약 10년간은 부부관계 중심의 단편소설이 주를 이루었고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대담론에 대한 서사적 응답으로 다양한 대중소설을 선보였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멜로적 역사소설을 선보인다. 최근의 연구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작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데 반해 초기소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장덕조 초기소설에

35, 한중인문학연구회, 2012, 267~288쪽.

9)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178쪽.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현대소설학회, 2003, 305~324쪽.

한명환, 『1950년대 지역신문에 나타난 여성담론 양상 연구-영남지역 신문소설의 ‘여성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7호, 어문연구학회, 2005, 398~422쪽.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다정도 병이런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9, 139~161쪽.

10)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159쪽.

대한 관심은 작가의 문학적 출발에 대한 해명이며 이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작가적 이력에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2세대 여성작가군의 문학적 전모를 밝히는 제반작업이 될 것이다.

3. 착실함의 근거, 부부중심의 가정소설

조리의 분류에 의하면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등단한 1932년부터 1940년대까지 각종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것으로 약 30여 편 가량에 해당한다.¹¹⁾ 장덕조 초기소설의 주요 소재는 인간적 삶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랑, 결혼, 가정 문제 등이다. 1930년대를 살았던 다양한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가장 여성적인 주제로 풀어낸 장덕조는 그러므로 2세대 여성작가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

장덕조 소설 속 여성들은 소박하게 삶을 설계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식민지 여성들이다. 청춘남녀는 사랑을 하고 그 결실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기다리며 서로에게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 실질적 공간은 고향이나 가정이므로 외부적 개입이나 사회적 갈등은 서사에 표면화되지 않는다.¹²⁾ 여성들의 주요 갈등은 연애나 애정갈등이며 그것이 사소하게 혹은 폭풍처럼 행복한 삶을 흔드는 위협의 요소가 된다. 하지만 장덕조 소설 속 여성들은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삶의 혼란을 일탈

11) 조리, 위의 논문, 136~138쪽,

12) 장덕조의 초기작 두 편(『저희』, 『애인』)에서는 경향문학적 색채를 느낄 수 있다. 여성의 정조문제를 사회 투쟁과 연결하여 직장파업을 주도하는 영애, '주의자' 애인의 우울과 번민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그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인숙의 세계는 외부세계와의 갈등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의식이 식민지 사회의 부조리나 인간상의 모순을 발견하는데 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갑자기 사랑의 완성으로 봉합되는 결말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나 타락의 기제로 삼지 않고 그간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반성의 계기로 삼는다. 그러므로 초기소설은 화려하거나 도발적이지 않으며 여성주인공에게서 발착한 모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초기소설의 여성들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평범한 가정의 건설이다. 낭만적 사랑의 다양한 양상과 그 잉여로서 미혼모, 축첩의 문제, 사랑의 결실로 형성되는 신혼가정, 이혼가정, 사별가정, 재혼가정 등 식민지 가정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장덕조 초기소설의 원형은 가정소설로 볼 수 있다.

가정소설은 가정을 주된 배경으로 하여 가정의 유지 변형 문제를 다루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소설이다. 인물들에게 가정은 세계의 중심이요 가치의 원천이며 존재의 궁극적 거점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사회 및 세계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초월적, 이상적 가치보다는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한다.¹³⁾

장덕조 초기소설은 가정소설의 본질을 충실히 따른다.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 및 애정 갈등, 임신과 출산의 문제, 친인척 문제, 집안의 대소사 등 가정을 구심점으로 연결된 많은 축들이 소재가 되어 이야기가 꾸려진다. 또한 한 가정이 자체 내 문제로 해체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다른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대체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외부의 요소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정소설의 전형적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의미의 가정소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서사의 기본향을 이루고, 그 불완전한 교체가 사건의 중심¹⁴⁾을 이루는 반면 장덕조 초기소설은 가족 관계 중 오직 ‘부부관계’에만 집중된다. 장덕조 초기소설은 30여 편 정도인데 그 중 부

13)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민음사, 1993, 297~309쪽.

14) 김종구, 『현대소설과 가족세계기』, 『한국문학의 두 문제-원환과 가계』, 김열규 편, 학연사, 1985, 275쪽.

부관계가 서사의 중심에 놓이고 그 갈등관계에 주목한 소설이 15편, 부부 갈등이 서사의 중심은 아니지만 부차플롯으로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설이 4편에 이른다.¹⁵⁾ 이는 초기소설의 과반수 이상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인데 그만큼 초기소설의 세계관과 주제의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가정소설의 전형적 형태가 가족의 결합원리로서 ‘혈연’과 ‘남성’ 중심의 소설이라면 장덕조의 소설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부부’(夫婦) 중심의 소설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장덕조의 가정소설이 전통적인 가정소설의 서사를 위반하는 1930년대적 가정소설의 새로운 형태임을 보여준다.

1930년대 식민지 가정은 재래의 구가정과 변별되는 근대성 성취의 한 거점이자 사회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사회 각처에서 가정 개량의 당위성이 높아가고 새로운 신가정의 롤모델이 제시되었다. 1930년대 신가정의 전형적 모습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이러한 가족의 정형성이야말로 가족의 ‘스위트 함’을 전달하는 표상이라 할 수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 결혼하고 그 결실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이라는 가족담론을 생성한다.¹⁶⁾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가정의 가족형태는 부부와 그 미혼의 자녀를

15) 집을 세주었다가 낭패를 본 일화를 다루는 「악마」(『여성』, 1938.8~9)와 「횡액」(『여성』, 1940.7)에서 주요 플롯은 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이 소설은 세입자임에도 주인에게 갖은 고통을 주는 세입자를 ‘악마’로, 그들과의 만남을 ‘횡액’으로 다룬다. 서사의 주요사건만 보면 부부문제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집문제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면서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 발생한다. 세주기를 반대하던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 이유로 덜컥 집을 세놓아다가 세입자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해결사로 나선다. 하지만 남편의 주선에도 일이 해결되지 않자 부부는 크게 말싸움을 벌이고 감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은 이제 부부의 싸움으로 전도된다. ‘집문제는 벌써 우리에게 있어 불가항력이었다. 가슴을 파고드는 병균같이 처리할 수 없는 악귀였다.’

16) 전미경, 「1920~30년대 가정담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 『가족과 문화』 19집, 한국가족학회, 2007, 103~130쪽.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다. 남편은 월급쟁이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안살림을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똑똑하고 건전하게 미래의 동력으로 자란다.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신가정의 형태를 보여준다. 월급쟁이 혹은 사업을 하는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는 풍족하지 않은 가정살림을 근면하고 검소하게 건사한다. 안과 밖, 아내와 남편의 정확한 역할 분담은 이분화된 성역할을 보여준다. 대부분이 아내의 이야기로 서사화되는 소설은 남편의 퇴근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짓고 대문간에서 남편을 기다리거나 혹은 술자리로 늦는 남편을 걱정하며 국 테우기를 되풀이한다.

『귀여운 여자』¹⁷⁾의 혜경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린다. 책을 읽다가 누워도 봤다가 갖은 몸부림을 쳐도 시간은 더디만 간다. 아침에 남편은 회식으로 늦을 것이라고 미리 언질을 했지만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화도 냈다 걱정도 했다 의심도 했다 온갖 심정을 북고 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남편인줄 알고 나가보니 순사가 와서 골목에서 강도사건이 났으니 조심하라 이른다. 이 말에 깜짝 놀라 취중에 검문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여 대문간을 나서는데 남편을 태운 자가용이 온다. 너무도 기쁜 마음에 남편의 품에 안기어 엉엉 운다. 『남편』의 인애, 『젊은 부부』의 아내, 『근친전후』의 아내, 『부부도』의 판선 등 대부분의 여성이 규정된 역할 규범에 따라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앞선 소설들과 반대로 여성이 여류예술가로 성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소설도 있다. 『여류예술가』¹⁸⁾의 영화는 E전 음악과 출신의 재원이지만 예술과 결혼의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하였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중 남편은 ‘훌륭한 여류예술가 일수록 훌륭한 살림꾼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아내에게 유학을 권한다. 남편의 도움으로 2년간의 유학생 생활을 마친 영화는 공적인 생활이 많아질수록 가정이 부담스러워진다. 결국 예술을 위해 가정을 버리기로 결심한 영화는 가정 탈출을 감행한다.

17) 장덕조, 『귀여운 여자』, 『매일신보』, 1937.1.10.

18) 장덕조, 『여류예술가』, 『삼천리』, 1940.4.

하지만 탈출한 영화는 사회에서 자신의 허영적 이미지와 예술계의 허위를 깨닫고 이에 환멸을 느낀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고무신을 바꿔 신고 가정으로 돌아온다.¹⁹⁾ 소설에서는 허위와 암투로 얼룩진 사회와 아늑한 천륜의 가정을 대립시켜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남편과 가정밖에 없다는 사실을 ‘되돌아온 노라’를 통해 보여준다.

이처럼 장덕조 초기소설은 부부중심의 신가정 형태를 가정소설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소설이 1930년대 신가정의 전형적 형태와 변별되는 특징적인 면모가 있다. 이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다. 부부간의 자녀에 대한 대화, 자녀의 문제가 주요한 사건의 모티프가 되거나 혹은 모성이 언급되는 소설은 현저히 그 수가 적다.²⁰⁾ 자녀의 문제가 핵심적 쟁점으로 취급되는 소설은 아이를 갖고자 하나 생기지 않아 이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소설뿐이다. 이때 아이는 남편의 사랑을 지속시켜줄 매개로서 역할한다.

<부부도>²¹⁾의 판선은 결혼한 지 칠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 걱정이 다. 그렇다고 남편의 애정이 덜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늘 남편에게 귀여운 아이 하나 안겨주지 못한 것이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 양 안절부절이다. 폐병에 걸려 입맛이 없고 살이 내리는 것을 임신으로 알고 오히려 좋아하는 지경에 이른다. 날이 갈수록 병증은 심해지고 남편에게 미안해진 판선은 갈보에게 가서 아이 얻을 것을 권한다. 남편은 크게 화를 내고 아내의 따귀를 때린다.

<한 교훈>²²⁾의 철수는 늦게 장가를 들어 아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

19) 조리, 앞의 논문, 77~78쪽,

20) 모성을 주제의식으로 다루는 소설은 초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자장가』(『삼천리』, 1936.4)가 한편 뿐이다. 『어떤 여자』(『중앙』, 1934.12)에서는 재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모성이 언급되지만 색안경을 끼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재혼을 정당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입원』(『삼천리』, 1938.4)에서는 전염병으로 입원하게 된 아들에 대한 애뜻한 모정이 그려지지만 소설의 핵심은 병원의 엄격한 통제와 규율에 관한 이야기이다.

21) 장덕조, 『부부도』, 『신가정』, 1934.11.

22) 장덕조, 『한 교훈』, 『삼천리』, 1936.6.

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삶의 기쁨이 없다. 그러던 중 부부가 우연히 거리에 나갔다가 동료가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을 사는 것을 보고 서로가 꼬여 말다툼을 벌인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부부는 결국 이혼하기에 이른다.

부부중심 가족에서 자녀의 역할이란 재생산 이데올로기를 통해 부부 사랑의 영속성을 보증하는 한편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켜 가족 내밀화에 기여한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표상이 된다. 초기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남편과의 사랑을 지속시켜 줄 아이, 사랑의 증표로서 자녀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이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내가 현모(賢母)가 될 수 없는 결핍의 증후이자 부부중심의 애정갈등만이 서사 내 중심 사건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아이의 공백으로 여성인물들은 모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다. 그러므로 모성이 주체되지 못한다. 이것이 장덕조의 소설이 제2세대 여성작가 소설들과 확연히 분기되는 지점이다. 제2세대 여성작가들은 모성 모티프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삶을 치열하게 재현하거나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공간에서 여성이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통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소설화하였다.²³⁾ 제2세대 여성작가들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모성’에 두어 서사 내 경험을 통해 여성이 주체이자 국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었다면 동일하게 ‘여성적’ ‘가정적’ 특성을 갖는 장덕조 소설은 제2세대 여성작가의 일반적 특성 내에서도 젠더 정체성을 ‘아내’로 한정하여 이분화 된 성역할에 봉사하거나 여성의 주체적 성향을 ‘사랑’을 통해 확인받고자 하였다.²⁴⁾

23) 허윤, 『193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모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21쪽.

24)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작가의 전기적 이력과 상당부분 겹쳐진다. 초기소설의 주인공물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는 점, 가정을 둘러싼 일상의 제문제 가 소재로 차용되는 점 등은 작가의 개인사가 서사의 소재로 차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 장덕조는 이화여전을 졸업하던 1934년 대대로 서울서문 살아온 박명환과 결혼하였고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동료문인들이 전하고 있다. 이것

1930년대 장덕조 초기소설의 여성인물들이 ‘아내’로서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특성화 방식은 이후 장덕조 소설의 지향점과 변모양상을 파악하는 의미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함께 생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장덕조의 부부중심의 가정소설은 식민지를 읽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질투의 역설, 신 ‘부부도’(夫婦道)의 건설

가정은 부부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집단이기에 부부관계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일차적 요건이다. 특히 1930년대 신가정의 전형적 형태로서 핵가족은 전적으로 부부관계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대가족에서보다 더욱 강하고 상호 관심도도 높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가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한 갈등과 좌절을 일으키게 되며 마침내 가족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가정 불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²⁵⁾ 장덕조 가정소설의 주요 갈등 요인은 부부 사이에 제삼자의 개입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애정 갈등으로서의 ‘질투’이다. 초기소설에서 일상의 안정성, 생활의 만족성, 삶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부부간의 ‘사랑’이다. 일상이 위협에 노출되거나 불안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사랑인데 가장

만으로 보면 초기 소설과 상당부분이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장덕조는 슬하에 자녀가 4남 3녀가 있었고 꽤 넉넉한 집안에서 신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작가의 전기적 이력을 기록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은 후행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25) 부부갈등의 원인을 조사한 이신영의 논문에 따르면, 그 원인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대별되고 성격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불일치, 부정(不貞) 행위, 기타 친족 문제 등이 있다. 이신영,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11~13쪽.

응집된 사랑의 다른 이름인 질투는 사랑이 완전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시련을 예비함으로써 사랑의 강도를 강화시킨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네 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의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 나는 자신이 배타적인, 공격적인, 미치광이 같은,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다.²⁶⁾

바르트의 질투의 단상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질투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실, 공포, 불안, 분노, 시기, 슬픔, 굴욕감 등의 혼합물이자 정념의 사회화를 무시한 감정의 민낯이라는 사실이다. 인간 역사를 통해 볼 때 질투는 많은 고통과 비극을 만들어 왔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질투는 관계의 산물이자 관계나 관계의 질을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의 산물이다. 질투는 이미 확립된 관계나 관계의 질을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현재의 관계나 관계의 질을 손상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이런 위협을 유발시킨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이 질투 반응의 핵심이지만 여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힘을 함께 가진 역설적 감정의 복합체이다. 그러므로 질투는 건강과 관계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반면 소중한 관계를 점검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²⁷⁾

초기소설의 대표작이자 질투의 양상과 주체의 반응을 주제의식으로 잘 보여준 『해바라기』²⁸⁾를 살펴보자. 인애는 시골의 넉넉한 가정에서 생활

26) 롤랑 바르트, 『질투』, 『사랑의 단상』, 김화영 옮김, 동문사, 2004, 213쪽.

27) 김교헌,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 한국심리학회, 2004, 772쪽.

28) 장덕조, 『해바라기(1)』, 『삼천리』, 1937.1.

의 노고를 모르고 자라나 여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아직 소녀같은 꿈을 안고 사는 젊은 아내이다. 남편은 명랑한 성미와 달콤한 표정과 화려한 웃음을 가진 남자이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아내의 방순(芳醇)한 향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년 문학소녀’, ‘못난이’라고 타박한다. 인에는 요즘 들어 괜한 트집과 역정을 내는 남편의 태도에 의심을 품게 된다. 여기에 영화를 보고 나오던 중 우연히 만난 기생과의 눈인사는 아내의 의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질투의 외부적 형상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제삼자의 개입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사랑할 때 연인에게 바쳐진 자신의 주체성을 그 연인의 사랑을 통해 되돌려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되돌려 받길 원하던 자신의 본질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절망적 질투심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서 발생하지만 그 상실은 한층 더 깊이 파멸적인 자아상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사실 인에는 결혼 후 남편에게 대하여 전신의 사랑과 온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의무 남편의 권리.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저 자기가 온갖 것을 받혀 사랑을 맹세하는 것 같이 남편으로부터는 굳센 남성의 정열과 진실을 요구하여 마지 않았다. (중략)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이 인에는 그같은 남편의 평범한 사랑으로만 충분하다 할 수 없었다. 불덩이 같은 그 무엇 그렇지 않으면 어름같은 증오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남편이 하여주지 않는 데는 할 수 없다.³⁰⁾

인에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자신의 전 존재가 남편에게 투여되어 있는 한 남편 또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

29) 스티븐 킨, 『사랑의 문화사』, 임재서 옮김, 말글빛냄, 2006, 466~496쪽.

30) 장덕조, 앞의 책, 284~285쪽.

현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결혼 전보다 더 모를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서 삶의 권태를 발견한 젊은 아내는 ‘별나게 초라해진 제 모양에’ 울음이 앞선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견주어 더욱더 멋져 보이는 남편과 화려한 기생을 떠올릴 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질투는 심장을 집어삼킨다. 인애의 계속되는 추궁과 의심에 남편은 달래기도, 빌기도 해 보았지만 끝내 질투의 끈을 놓지 못하자 크게 노한다.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만들려는 인애에게 남편은 ‘망령 난 늙은이’라고 욕하고 집을 나간다.

인애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 흥분한 나머지 쓰러진다. 인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한 언니 영희가 찾아온다. 인애는 영희에게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정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다고 말한다. 이에 영희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빗대어 부부애를 강의하는데 부부 사이의 사랑이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위하는’ 사랑이라는 것, 부부애의 가장 큰 원수는 집착된 형식(질투)과 허울 좋은 맹세(입 밖으로 하는 맹세)라는 것이다.

“그 보담도 남편을 더욱 크게 사랑할 만한 아량을 가져 보는 게 어때?”

“응, 알아들었어. 근데 그런 사랑을 가질려면?”

“노력이지. 위선 관념뿐인 사랑보다 육체적으로 인애가 맡은 바 천직을 진실하게 열렬히 행하고.”

“어떤 천직이우. 육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신경질부터 좀 녹이고 바느질도 잘하고 살림도 좀 잘살고 그리고 애기 하나 낳고 말야. 병 없는 부부 사이에서 어린애가 생기지 않는 건 아내의 과도한 신경질이 대부분이 원인이라거든.”³¹⁾

영희가 강조하는 부부도의 핵심은 여성의 육체적 천직을 다하는 것에

31) 장덕조, 『해바라기(3)』, 『삼천리』, 1937.10, 47쪽.

있다. 그 예로 바느질을 포함한 살림살이를 잘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아내로서의 천직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영희가 강변하는 신 '부부도'의 핵심은 아이 낳기를 포함한 아내 역할론의 강화로 신가정의 핵심 담론이 된다.

인애는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질투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임을 깨닫고 반성한다. 자신의 심정적 불안을 남편에게 책임전가하고 그로부터 오는 타박에 오히려 스스로의 괴움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불행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인애는 질투를 계기로 진정한 부부애와 완전한 사랑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남편도 마찬가지로이다. 집을 박차고 나온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는 알고 후회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심약한 아내에게 격한 타격을 주었으리라는 반성은 물론 결혼 후 '여태까지 체험해 보지 못하였든 풍부한 애정'과 '어제까지 것처럼 범연하고 천편일률적이든 아내가 이처럼 아깝고 귀엽고 애뜻할 줄이야' 세삼 느끼게 된 것이다. 남편은 잘못을 후회하고 득달같이 집으로 쫓아간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며 자신을 기다려 준 것을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다짐하며 더욱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 이처럼 질투로 인한 부부갈등은 부부 개인 간의 강화된 역할론과 건강한 가정윤리의 건설이라는 신 '부부도'의 대명제를 던지며 아름답게 종결된다.

질투로 인한 부부갈등을 다루는 소설들은 「해바라기」외에도 상당수가 있다. 「남편」³²⁾에서는 친구인 임 군을 자신의 집에 하숙시켰다가 아내와의 사이를 오해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남편의 심리를 그리고 있다. 「여름밤」³³⁾에서는 남편의 '기생 오입' 소문을 듣고 아내가 질투하여 남편과 싸움을 벌이고 「양말」³⁴⁾은 바(bar)의 마담으로 있는 아내와 손님 사이를

32) 장덕조, 「남편」, 『신가정』, 1933.10.

33) 장덕조, 「여름밤」, 『삼천리』, 1938.10.

34) 장덕조, 「양말」, 『여성』, 1936.9.

오해해 질투를 느끼는 남편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근친전후」³⁵⁾에서는 근친을 떠나는 아내가 남편의 늦은 귀가와 기생방 출입으로 잔소리를 했다가 말다툼을 벌이고 「젊은 부부」³⁶⁾에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여고동창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질투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질투의 양상을 서사화 함에도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질투로 이별이나 죽음, 파탄 같이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소설이 없다. 오히려 질투는 잊고 있었던 상대방의 매력을 일깨우는 자극제로 이용됨으로써 결혼 3년차 부부의 권태와 매너리즘을 해소하고 다시 연애 때의 감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요약해 보면, 장덕조 소설에서 질투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오해로 유발된 질투심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조성된다. 이 싸움은 원인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파국으로 치닫는 듯 하지만 부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위치와 자기를 되돌아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아내와 남편은 감정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느낀다. 질투는 개입된 인물들 간의 비난보다는 구성원간의 반성의 계기가 됨으로써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고 부부역할론을 핵심으로 하는 신 ‘부부도’(夫婦道)의 새로운 윤리가 탄생한다. 이들은 고난을 이겨낸 식민지 시대 가장 아름다운 현부현처(賢夫賢妻)들이다.

질투를 애정 갈등으로 다루는 소설에서 특징적인 면모가 하나 더 있다. 제삼자의 개입으로 부부갈등이 유발되는 소설에서 개입된 제삼자의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제삼자의 형상은 아내와 남편의 상상 속에서만 구체화될 뿐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둘러싼 부부간의 대립만이 극대화되어 소설은 다분히 심리주의적으로 전개된다.

장덕조의 초기소설 전반이 부부중심의 가정소설로서 동일한 소재와 갈등을 서사화 함에도 천편일률적이거나 소품으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는 작가의 뛰어난 심리묘사에 있다. 갈등이나 불화 중에 있는 남편, 아내의

35) 장덕조, 「근친전후」, 『여성』, 1939.12.

36) 장덕조, 「젊은 부부」, 『조광』, 1940.3.

거짓없는 내면 심리, 미묘한 감정변화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상황의 변화가 긴장감 있게 전개됨으로써 소설은 개연성을 획득한다. 작가의 이러한 장점은 동성인 여성인물의 심리를 묘사할 때 보다 오히려 남성인물의 심리를 그려낼 때 더욱 탁월하다. (『한 교훈』, 『양말』, 『해바라기』, 『여름밤』, 『근친전후』, 『인간낙서』 등)

하지만 이러한 찰진한 심리 묘사를 끝까지 밀어붙여 인간의 한 본성을 파악하거나 혹은 식민지 인간상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장덕조 소설의 한계가 있다. 다만 현상과 사건의 나열, 일차적 감정 서술, 손쉬운 화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도덕적 기율. 확고하고 뚜렷한 일원론적 가치 지향성은 장덕조 초기소설을 교조주의적(敎條主義的)으로 만든다.

5. 비극적 아이러니, 제삼자의 개심(改心) 장치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부부중심의 가정소설로 질투를 주요 갈등으로 주제화되었다. 부부는 제삼자의 개입으로 가정 불화를 겪는다. 앞서 살핀 바대로 제삼자는 부부사이의 갈등의 요소이지만 서사 내에서 구체적 행위의 주체는 아니다. 서사 내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질투와 반성, 화해의 과정이다.

반면 개입하는 제삼자가 주인공인 소설도 있다. 이미 언급 된 바 장덕조 소설의 주제의식이 가정윤리의 건설에 있다면 이들은 가정윤리의 파괴자이자 사랑의 배신자들이다. 아내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아내가 ‘질투’를 통해 자기 반성의 길을 모색하였다면 개입자이자 배신자인 이들은 ‘아이러니’를 통해 도덕적 개심(改心)을 하게 된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들도 결국 가정윤리 건설을 위한 희생자들이다.

그동안 장덕조 소설은 주제의 과도한 우위성과 소설 형식의 미달로 가치가 폄훼되어 왔다. 하지만 탁월한 심리묘사나 기교적 우월성은 이러한

평가를 불식시킨다. 장덕조 소설의 기법적 우월성은 아이러니의 장치를 통해 미학적 성취를 이루어낸다.

아이러니의 사전적 정의는 ‘의미하려는 것과 반대로 말하여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조롱하는 방식’이다. 아이러니의 생성은 수사학적 관점에서 출발되었으나 독일 낭만주의를 거치면서 예술 창작의 원리가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문학현상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⁷⁾

아이러니의 본질, 역사, 성격과 유형을 총체적으로 분류한 뫼케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크게 말의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로 나뉜다. 말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스트가 말이나 표정, 몸짓으로 무엇을 가장하거나 아닌 것을 그런 척, 그런 것을 아닌 척 함으로써 형성되는데 주로 수사학, 서술과 풍자의 형식, 문체론 등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반면 상황적 아이러니는 사건의 진행과 어긋난 결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스토리 차원의 아이러니이다.³⁸⁾ 장덕조는 기법적 측면에서 상황적 아이러니를 즐겨 사용한다.

채만식이 유쾌한 소설로 분류한 「어미와 딸」³⁹⁾을 보자.⁴⁰⁾ 술집주모인 어미는 매일같이 드나들던 정 가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사내의 변심을 생각하고 천지가 아득해 진다. 어미는 정가와 정이 붙은 후 늙은 영감을 확대해 자살하게 하고 노름빚을 대기 위해 외딸마저 첩으로 팔아버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꾼 정가는 이제 그의 남편이요, 가족이요, 보배였던 것이다. 정가를 직접 찾아 나선 어미는 반길 줄 알았던 정가가 오히려 아내 뒤에 숨어버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흠뻑 두들겨 맞고 동네 구경거리가 되어 돌아온다. 어미는 돌아오는 길에 늙은 영감이 빠져 죽은 연못가에서 신세를 한탄한다.

37) 이은주, 『디드로 소설과 아이러니』, 만남, 2006, 11~15쪽.

38) 뫼케,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44~81쪽.

39) 장덕조, 「어미와 딸」, 『삼천리』, 1934.8.

40) 채만식은 장덕조의 소설 중 유쾌한 것으로 「저희」, 「어미와 딸」, 불쾌한 것으로 「양말」, 「한메」를 꼽고 있다. 채만식, 「장덕조 여사의 진경」, 『조광』 5권 3호, 1939.3, 136~139쪽.

어미는 늙은 영감(남편)의 사랑을 저버린 배신자이자 정가네 가정에 개입한 가정파괴자다. 늙은 영감이 아내의 갖은 학대와 매질에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마음이 잠깐 ‘젊은 몸’에 현혹되어 자신을 떠난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이 영영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된 영감은 살아 갈 의미를 잃고 결국 추운 첫겨울 집 뒤 연못에 몸을 던진다. 어미는 늙은 영감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가 정가의 본처에게 봉변을 당한 후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자신은 착한 영감을 사지(死地)로 내 몬 악처(惡妻)이자 아내있는 남자를 탐한 간부(奸婦)였던 것이다.

어미는 정가의 처에게 봉변을 당한 후 앓다가 폐병을 얻는다. 어미의 병간호 때문에 딸이 친정에 오게 되는데 이후 웬 사내가 집을 드나든다. 늙은 남편에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딸에게 사내가 생긴 것을 알고 어미는 깜짝 놀란다. 사내는 딸이 도망갈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불린다는 이유로 노름판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다 날리고 다시 노름 밀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딸은 남편에게 어렵게 얻은 금반지를 빼 사내에게 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자기처럼 젊은 사내에게 반해서 몸을 망치고 딸의 앞길이 보이는 듯하였다. (중략)

울상이 된 사내 얼굴이 보이는 듯하였다. 응, 정가도 저런 수단으로 돈을 긁어갔다. 그는 딸이 가여웠다. 딸은 어미의 가던 길을 다시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중략)

그는 전신이 찌르르 하였다. 선량한 늙은 남편을 졸라서 사가진 금반지를 울며 빼놓는 딸의 모양이 눈앞에 어른거리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이를 갈았다. 그것은 젊은 사내에게 반해서 남편을 배반하는 딸이 아니요 정가에게 홀려 영감을 죽이던 자기 모양이었다.⁴¹⁾

41) 장덕조, 앞의 책, 56~57쪽.

어미는 정 가의 아내에게 봉변을 당한 후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문란한 삶을 반성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산 대가는 반성만으로 부족하다. 어미는 육체적 욕망을 쫓고자 첩으로 팔아버린 딸이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고 경악한다. 딸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자신이 늙은 부자에게 딸을 팔아버린 결과이며 늙은 남편에게 성적 욕망을 채우지 못한 딸은 자신과 똑같이 ‘젊은 몸’에 현혹되었던 것이다. 딸의 인생이 악처이자 간부인 어미의 인생과 겹쳐질 때 어미는 삶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어떤 일의 상황이나 상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정반대로 나타날 때 발생한다. 기대와 결과의 차이, 악마가 인간을 농락하듯 희생자인 어미는 운명 앞에 좌절한다.⁴²⁾ 이렇듯 아이러니적 상황은 어미에게 자기 반성적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어미는 딸에게 이야기 하기도 전에 혼수상태에 빠지고 죽음이 예고됨으로써 비극적으로 종결된다.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자의 마음」⁴³⁾이 있다. 이 작품은 첩을 본 남편에 대한 본처의 질투와 첩의 이중적 마음을 아이러니를 통해 훌륭히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자 아이러니적 희생자는 늙은 창기 ‘향화’이다. 스물 일곱의 늙은 창기 향화는 인품 좋은 영감을 만나 기생 생활을 청산하고 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향화는 처음엔 고맙던 영감이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삭아버린 정력으로 괴롭을 느낀다. 젊은 여자의 생기와 정열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향화는 영화를 보러갔다가 옛 손님 흥운을 만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결국 향화는 영감 마누라의 눈을 피해 연애를 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큰 고초를 겪고 집에서 쫓겨난다. 다옥정 집에서 쫓겨날 때는 자신

42) 뒤편은 상황적 아이러니를 다양하게 세분화하는데 이때의 아이러니는 ‘사건의 아이러니’에 해당된다. ‘사건의 아이러니’는 사건의 어떤 예견치 못한 변전이 희생자의 계획, 기대, 희망, 두려움, 욕망을 뒤집고 좌절시킴으로 나타나는 아이러니이다. 뒤편, 앞의 책, 67~115쪽.

43) 장덕조, 「여자의 마음」, 『조선일보』, 1935.9.20~10.10.

이 좋아하는 사내와 마음껏 살 수 있어 흥가분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나 이 아래인 사내를 남편으로 섬기는 생활이란 결코 즐거운 생활만은 아니었다. 일거리 없는 사내는 매일 집에서 뒹굴고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졌으며 여기에 덮쳐 지병까지 심해진다.

난봉이 심한 흥운은 집에서 부리는 계집애까지 넘보기 시작한다. 향화는 표면으로는 웃음을 띠고 잘해주었지만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질투를 금할 수가 없었다.’ 결국 사내는 향화 몰래 옥이를 품고 이를 옆집 아줌마를 통해 듣게 된 향화는 시골에 있다는 옥이의 건달 삼촌을 불러 올려 옥이를 시골로 보낸다.

향화는 사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옥이를 떠나보낸다. 옥은 어린 향화이다. 향화는 부모도 친척도 없는 외로운 몸이 건달로 돈만 뜯어가는 오라비 때문에 여기저기 창궐을 전전하였다. 옥이 또한 가난한 살림으로 열여섯에 종으로 팔려 건달 삼촌에게 돈을 뜯겨 왔다. 향화가 다옥정 집에서 쫓겨날 때 옥을 큰댁으로 내치지 않은 것은 어렸을 적 불쌍한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옥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비록 잘못이 옥에게 없다 하더라도 난봉 난 사내 곁에 옥을 둘 수 없게 되자, 예전에 세상이 향화에게 가해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옥을 내친다. 여기에 향화의 첫 번째 아이러니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로써 사건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사내는 이제 술집 주모와 몸이 붙었다. 남대문 영감의 큰 마누라처럼 향화는 밤마다 술집 근처를 배회하며 별건 눈으로 사내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건달 삼촌을 따라 시골로 내려간 옥이가 집에서 몰래 도망쳐 향화네로 다시 온다. 향화는 이미 가망 없는 생을 생각하고 사내와 옥을 합방시켜준다. 대의를 위해 서로를 합방시켜 주긴 했지만 수없이 마음이 들끓는다. 그의 눈앞에는 남대문 집의 마나님이 보였다. 그 억센 팔, 부리부리한 두 눈, 끝으로 그 집을 쫓겨나올 때 미친 듯이 차고 때리고 하던 그 모양이 자기는 감히 따르지 못할 신상처럼 거룩하게 떠올랐다.

향화는 자신의 어린 분신과 같은 옥을 통해 큰마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큰마나님의 위치가 되어 보니 사내를 빼앗긴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여기에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다. 자신은 끝까지 허영심에 사로잡혀 자비로운 본처의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 반해 악다구니를 쓰며 첩을 구박하고 내친 큰마나님이 오히려 자신은 근접하지 못할 솔찍하고 본처다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자신은 죽어도 조강지처는 못될 것이었다.

향화는 영감의 첩이 됨으로써 일차적으로 가정 파괴자이다. 기생 첩으로 인해 큰마누라는 질투심에 휩싸이고 가정 불화를 만든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향화는 젊은 사내를 얻어 첩의 자리를 박차고 스스로 본처가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처의 자리는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과 인내가 요구된 자리였다. 향화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어린 향화에게 본처의 자리를 위협받자 옥이를 내쫓는다. 옥이면서 동시에 큰마나님인 상황, 첩이면서 동시에 본처인 상황, 여기에 이 작품의 이중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이 두 작품 외에도 아이러니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 개심하게 하는 작품으로 「인간낙서」⁴⁴⁾가 있다.

앞서 살핀 바대로 부부관계의 개입자이자 사랑의 배신자인 이들은 결말에 이르러 모두 죽는다. 서사 내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개심하지만 가정윤리의 파괴자들에게는 더한 대가가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결말은 질투로 인해 불화를 겪던 부부들의 행복한 결말과는 정반대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이러니를 통한 상반된 결말 처리 방식 또한 부부도와 가정윤리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작가는 아이러니의 기법적 성취를 통해 인생의 복잡성과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균형 잡힌 넓은 시야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아이러니를 통해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풍부한

44) 장덕조, 「인간낙서」, 『조광』, 1940.11.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독단적인 것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6. 나오며

그간 문학사에서 장덕조의 위치는 제2세대 여성작가군을 대표하는 작품없는 작가, 혹은 ‘안이한 문장’과 ‘독창성 없는 스토리’로 엇비슷한 작품을 찍어내는 ‘판박이’ 작가 등으로 혹평되었다. 하지만 한 작가가 작위적, 공식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유사한 소재와 주제를 고집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작가는 여성적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 소재와 심리를 개연성 있게 그려내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이것이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여성과 현실에 대한 장덕조의 솔직함이자 성실함이다. 이는 작가적 특성이자 문학적 색채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지 비난이나 질책의 대상은 아니다.

초기소설의 여성들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가정의 건설에 있다. 장덕조 초기 가정소설은 부부중심의 신가정 형태를 보여주는데 안과 밖, 아내와 남편의 정확한 역할 분담은 이분화된 성역할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소설이 1930년대 신가정의 전형적 형태와 변별되는 점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기소설이 내재한 결핍의 증후이자 부부중심의 애정갈등만이 서사 내 중심 사건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장덕조 가정소설의 주요 갈등 요인은 부부 사이에 제삼자의 개입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질투’이다. 오해로 유발된 질투심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조성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듯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위치와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 질투는 개입된 인물들 간의 비난보다는 구성원간의 반성의 계기가 됨으로써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고 부부도(夫婦道)의 새로운 윤리가 건설된다. 새롭

게 탄생한 부부도는 강화된 부부역할론과 부부애(夫婦愛)이다. 부부가 질투를 통해 반성의 길을 모색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였다면 질투의 유발자인 제삼자는 ‘아이러니’를 통해 도덕적 개심(改心)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되고 결말에 이르러 죽는다. 이러한 결말은 질투로 인해 불화를 겪던 부부들의 행복한 결말과는 정반대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아이러니를 통한 상반된 결말 처리 방식은 부부도와 가정윤리의 건설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일반적으로 장덕조의 소설은 전체소설을 지배하는 주제적 강박으로 소설적 형상화가 현저히 미달된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는 아이러니를 통한 기법적 성취로 해소될 수 있다. 아이러니는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삶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특히 장덕조는 아이러니를 창작방법론이나 세계관으로 차용하는데 아이러니를 통해 인생의 복잡성과 가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균형 잡힌 시야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장덕조식 아이러니는 삶의 특수성을 주관하는 보편성의 승리를 통해 주제의 식으로 나아간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저희』, 『제일선』, 1932.8.
- 『애인』, 『삼천리』, 1933.1.
- 『남편』, 『신가정』, 1933.10.
- 『아내』, 『신가정』, 1934.2.
- 『어미와 딸』, 『삼천리』, 1934.8.
- 『부부도』, 『신가정』, 1934.11.

- 『어떤 여자』, 『중앙』, 1934.12.
『여자의 마음』, 『조선일보』, 1935.9.20~10.10.
『자장가』, 『삼천리』, 1936.4.
『한 교훈』, 『삼천리』, 1936.6.
『양말』, 『여성』, 1936.9.
『해바라기(1)』, 『삼천리』, 1937.1.
『귀여운 여자』, 『매일신보』, 1937.1.10.
『창백한 안개』, 『조광』, 1937.4.
『해바라기(2)』, 『삼천리』, 1937.5.
『해바라기(3)』, 『삼천리』, 1937.10.
『한때』, 『여성』, 1938.2.
『입원』, 『삼천리』, 1938.4.
『악마』, 『여성』, 1938.8~9.
『여름밤』, 『삼천리』, 1938.10.
『황혼』, 『문장』, 1939.7.
『파마넨트』, 『조광』, 1939.8.
『근친전후』, 『여성』, 1939.12.
『짧은 부부』, 『조광』, 1940.3.
『여류예술가』, 『삼천리』, 1940.4.
『횡액』, 『여성』, 1940.7
『인간낙서』, 『조광』, 1940.11.

단행본

-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1982.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화영 옮김, 동문사, 2004,
뫼케, 『아이러니』,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스티븐 쾨, 『사랑의 문화사』, 임재서 옮김, 말글빛냄, 2006,
신영덕, 『한국전쟁기 중군작가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이은주, 『디드로 소설과 아이러니』, 만남, 200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민음사, 1993.

논문

- 김교현, 「남자의 질투와 여자의 질투 :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건강』 9, 2004, 772쪽.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장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01집, 2008, 333~357쪽.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33집, 2005, 257~276쪽.
 김종구, 「현대소설과 가족세계기」, 『한국문학의 두 문제-원한과 가계』, 김열규 편, 학연사, 1985, 275쪽.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2003, 305~324쪽.
 박정애, 「동원되는 여성작가-한국전과 베트남전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10호, 2003, 69~87쪽.
 백 철, 「10월 창작평-금일의 문학적 수준」, 『조선일보』, 1938.10.5.
 백 철, 「금년의 여류창작계」, 『여성』, 1936.12, 60~63쪽.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38~41쪽.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상허학보』 13집, 2004, 277~314쪽.
 양주동, 「여류문인 편감촌어」, 『신가정』, 1934.2, 30쪽.
 이무영, 「여류작가논평」, 『신가정』, 1934.2, 70쪽.
 이신영,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4, 11~13쪽.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성작가론」, 『여성』, 1940.9, 51~55쪽.
 장미경 · 김순전, 「여성작가 소설에서 본 내선일체 장치-최정희 「환영의 병

- 사』와 장덕조 『행로』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제51집, 2010, 183~192쪽.
- 전미경,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 『가족과 문화』 19집, 2007, 103~130쪽.
-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차희정, 『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 267~288쪽.
- 채만식, 『장덕조 여사의 진경』, 『조광』 5권 3호, 1939.3, 136~139쪽.
-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다정도 병이런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7, 2009, 139~161쪽.
- 한명환, 『1950년대 지역신문에 나타난 여성담론 양상 연구-영남지역 신문 소설의 ‘여성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7호, 2005, 398~422쪽.
- 허 윤, 『1930년대 여성장편소설의 모성담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21쪽.
- 홍 구, 『여류작가군상』, 『삼천리』, 1933.3, 75쪽.

Abstract

Born the theory of husband and wife's role and new family ethics

-with Jang Deok-jo's early short stories-

Jin Sun Young

Since Jang Deok-jo started her literary career in 1932 at the age of 19, she had written various kinds of works over 60 years until she died in 2003, and she represented second-generation women writers under the Colonial era.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rting of her earlier works that many researches have omitted so far.

Jang, Deok-jo makes a story to choose a material that close to women's life and emotions in Colonial times. Most of stories about her family story deal with a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Main factors of these conflicts are a birth issue and a third party's intervention. These are idealistic gender talk in 1930's and is connected with good wife and wise mother issue. Between healthy husband and wife without a birth is wife's lack of qualification, this means she cannot be a wise mother. Speculation is the action of not having virtue and means she cannot be a good wife. As it is traditionally said called 'chil-geo-ji-yak: 7 things women must not to do', these women are the subject of divorce. However, these stories endings are not tragic because their couple/family are cemented in 1930's new 'love' not like traditional one.

A birth and jealousy issue which deals as a part of love conflict is not a critic among all characters, but becomes an opportunity of self-reflection between them. Resolved these conflicts builds a new

husband and wife's role. A new husband and wife's role is husband and wife's strengthened role discussion which is based of husband and wife's love. That is, wife does house work, giving birth, and not to doing speculation; husband does make money and love his wife. Husband and wife's role discussion based on love is come into the world as a family ethic suited for 1930's new family.

Kew words : Second-generation women writers, Domestic Novel, New Family, Jealousy, Husband and wife's love, Husband and wife's role, Family ethics, Irony, Morally change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